



박성천 작가가 추천하는 책

사랑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역사가 되었다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다

권경률 지음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표면적인 힘은 공포와 욕망이다. 하지만 사람의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사랑이다. 고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는 우왕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었다. 공민왕과 신돈이 한 여인 반야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선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왕비로 삼기 위해 집권당을 갈아치우며 당쟁을 사생결단으로 격화시켰다. 여전사 박차정과의 사랑과 결혼이 없었다면 김원봉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사에서 금지된 사랑을 꿈꾼 여인들은 구시대로부터 가혹한 응징과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내 그들이 꿈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본문 중)

책 제목이 유행가 가사 같다.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이다. 사랑 또한 그러하다. 보편과 본질의 특성을 내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다. “사랑은 가장 사소한 개인사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사회적인 관심사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지나온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앞을 내다볼 수도 있다.

‘한국사 연애열전’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조선을 새롭게 하라’, ‘조선을 만든 위험한 말들’의 작가 권경률이 펴낸 ‘시작은 모두 사랑이었다’는 남녀의 사랑을 모티브로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풀어낸다.

저자는 ‘금지된 사랑’의 역사를 ‘가부장제’의 역사로 상징한다. 그 예로 나혜석과 어우동을 든다. 나혜석이 1935년 2월 잡지 ‘삼천리’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다.” 나혜석이 활동하던 시대는 자유연애가 막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부장 사회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혜석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다름없는 발언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 이후 나혜석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1949년 3월 14일자 ‘대한민국관보’에는 ‘나이 34세. 주소 미상. 이를 나혜석’이라는 부고고 실렸다. 그것은 행려병자의 부고였는데, 사실상 ‘사회적인 타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의 어우동은 왕명에 따라 처형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양반가 여인이 각계각층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눴다는 것이다. 일명 ‘간통죄’였다. 조선의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 처벌 조항에는 곤장 80~90대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그녀와 간통했던 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배에서 복귀했다.

저자는 사랑을 이용했던 남자들의 이야기도 다룬다. 지금까지 양명대군은 문치의 시대를 열기 위한 아버지 태종의 뜻을 이해하고 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일부러 읍주거구에 빠진 척했다는 게 전해오는 얘기다. 그러나 사실 양녕은 원로대신의 첩과의 스캔들로 파멸을 자초했다.

그 뿐 아니다. 숙종은 사랑하는 여인 장옥정을 왕비로 삼기 위해 집권당을 갈아치

웠다. 특별한 처소 취선당을 지어줬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로 인해 ‘피의 숙청과 왕비 교체’라는 태풍이 조선을 덮었다.

저자는 “한국사의 지배층은 남녀의 사랑을 다스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때로는

사랑을 좌악시하면서 민중에게 공포심을 심었고, 때로는 사랑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웠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사의 진실이다. 사랑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역사가 되었다.” (〈발간소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밀크맨

애나 번스 지음·홍헌별 옮김



세계 제3대 문학상이자 영미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이 제정 50주년을 맞아 선택한 작품이 출간됐다. 2018년 맨부커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여성소설상 최종후보에 올랐던 애나 번스의 ‘밀크맨’이 바로 그 책.

소설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번역 출간됐으며 영미권에서는 60만부가 팔렸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금 이곳의 독자들이 꼭 읽어야 할 작품”이라고 평했으며 정희진 여성학자는 “압도적! 문장의 구조, 내용 모두 완벽하다”고 추천했다.

소설은 1970년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폐쇄적 공동체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유무형의 폭력에 노출된 18세 여성의 일상과 내면이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된다. 주인공 ‘나’는 십남매 중 ‘가운데아이’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다.

어느 날 책을 읽으며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승합차를 세우고 아는 척하며 말을 건넌다. 사람들은 그를 밀크맨(우유 배달부)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우유를 배달하지 않는다. 41세 유부남인 그는 무장독립투쟁 조직의 주요 인사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대립하며 폭력이 일상화된 마을에서, 저항군 핵심 간부라는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날 이후로 ‘나’의 신경은 예민해진다. 밀크맨은 저수지 공원에서 리닝을 하는 곳에, 또는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 야간학교 옆에, 내가 어디를 가든 불쑥불쑥 나타난다. 나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다. 과연 밀크맨은 누구인가?

〈창비·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고학의 역사

페이건 지음·성춘택 옮김



고고학은 인류의 지나온 역사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없지만 유물과 유적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다.

인간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흥미진진한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졌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페이건이 펴낸 ‘고고학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 역사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저자는 그동안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위대한 공존’, ‘인류의 대항해’, ‘피싱’ 등 고고학과 고대 문명, 유적 발굴 등에 관한 의미있는 책을 다수 발간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고고학의 출발부터 학문으로 자리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망한다. 책에는 300만 년이 넘는 인류의 뿌리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에 나선 사람들, 중요한 발굴의 역사, 새로운 연대측정법의 개발 등 다양한 이야기가 기술돼 있다.

고고학의 시작은 지중해 세계를 토대로 전개됐다가 지금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아프리카, 몽골,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고고학자들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다. 불과 1세기 전만해도 거칠게 땅을 파야했지만 지금은 원격탐사나 레이저, 위성사진 등을 동원해 유적을 찾고 제한된 발굴을 하기도 한다.

아외 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묻혀져 있던 사실을 찾아내기도 한다.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단서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고고학의 핵심은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고고학을 통해 우리의 인류를 찾게 해준다는 것이다.

〈소스책·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둥어를 통해 홍콩의 문화를 읽다

조은정 지음



최근 중국 정부의 ‘범외인도법’ 추진으로 일어난 홍콩 시민들의 반중국 시위가 이목을 끌고 있다. ‘천안문 사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오랫동안 반복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홍콩이 어떤 곳이며 중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은정 교수가 홍콩의 생활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면면을 담은 책 ‘광둥어를 통해 홍콩의 문화를 읽다’를 펴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홍콩 여행을 떠날 때면 소풍, 맛집 탐방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안타깝다”며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융화돼 있는 문화유산의 도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집필 의도를 전했다. 그 말처럼 책은 여행지뿐 아니라 명절과 시장, 박물관, 건축물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으며, 저자가 홍콩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며 찍은 1100여장의 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또 중국공용어가 아닌 광둥어 한자와 발음을 함께 표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언어가 문화의 형성·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현지인들의 언어를 알아야 홍콩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은 13개 장에 걸쳐 진행되며, 각 장은 홍콩의 지리와 자연환경, 아편전쟁부터 우산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 생활, 거리 이름, 교통, 사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생활 속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독특한 숫자 읽는 법, 외래어 등 광둥어에 대한 설명도 실려 있다. 이밖에 음식과 관광지, 축제에 담긴 유래도 자세하게 분석해 담았다. ‘장국영의 언어’ 등 책을 썼던 저자는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푸른길·3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마존의 생물은 글자 그대로 ‘진기’하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좀더 그리 다채로운지 매번 자연의 신비를 마주하게 된다. 그 경이로움을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생물다양성의 보고’라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상의 동식물 중 10% 이상의 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의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아마존을 직접 찾아가 야생 동물들을 기록한 이가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학 중인 전공인이 펴낸 ‘아마존 탐사기’는 아마존에서의 42일에 걸친 양서파충류 조사 기록이 담긴 탐사 일지다. 아마존 생태보전을 위한 비영리 연구기관 ‘Fauna Forever’의 연구에 인턴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담은 책으로, 페루 푸에르토말도나도 탐보파타 지역에서 만난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 등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의미에 고민을 던진다.

책은 각종 동물과 연구 활동, 풍정이 담긴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 채집한 생물의 생김새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특징적 요소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무늬나 울음소리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어 이해를 돕는다.

각각의 생물에 저자만의 스토리가 접목되는 점도 흥미롭다. 단순한 생물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소리와 흔적을 찾아다니며 무인 카메라 등을 활용해 생물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과 감동을 일기처럼 풀어내 읽는 재미를 더했다. 또 벌레들과 함께 잠을 자고 흙탕물로 빨래를 하며,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현지에서 겪은 사건들도 세세히 적어 현장감있게 읽을 수 있다.

〈지오북·1만9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양산지점 573-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운암지점 528-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운암산지점 513-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매곡지점 572-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첨단지점 576-4150 ● 신용지점 ● 신용지점
--	--	--	---	--	--